

# “신념 바탕으로 통합의 리더십 펼쳐야”

## 전남매일 제5기 CEO경제아카데미 <5강>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칭기즈 칸·에이브러햄 링컨 예시  
포용력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  
조화로운 원팀 만들기 초점 뒤야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CEO는 결국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서로 서로를 비추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전남매일 제5기 CEO 경제아카데미 5강에서 ‘지도자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를 주제로 강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CEO는 결국 자기 자신의 생각과 신념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칭기즈 칸을 예로 들었다.

“칭기즈 칸은 1995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선정한 1,000년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뽑힌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로 하기 싫은 일에서도 송고함을 찾고, 그 송고함을 신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윤 의원은 이러한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칭기즈 칸이 적장의 아들을 자신의 장자로 받아들인 설화를 예로 들었다.

“칭기즈 칸의 첫 번째 아내인 보르테가 메르키트족의 기병대에게 납치당해 그들의 영지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칭기즈 칸은 자신의 양아버지와 같았던 케레이트 부 용 칸의 세력과 자다란의 자무카 세력과 연합해 메르키트족에게 반격, 보르테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르테가 칭기즈 칸을 만나러 돌아오던 중 아기를 낳게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주치’였습니다.”

실제 주치의 탄생이 메르키트족의 습격 이후



윤상현 국회의원



15일 오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5기 전남매일CEO경제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된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지도자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윤 의원은 “이는 바로 더 큰 뜻을 위해 작은 것을 포기하는 CEO, 즉 리더의 정신이다. 칭기즈 칸은 대제국 건설을 위한 신념이 커 자신의 장자가 적장의 자식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도 예로 들었다.

윤 의원은 “링컨은 자신을 모욕했던 에드윈 스탠튼을 국방부 장관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윌리엄 스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한 인물”이라며 “원수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능력, 즉 포용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링컨의 리더십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 한 도리스 굿윈의 ‘라이벌로 구성된 팀(Team of Rivals)’을 언급했다. “링컨은 ‘노예해방을 통한 국가통합’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분열된 나라를 다독이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포용력을 발휘해 라이벌들로 내각을 구성해 자기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배려한 링컨은 그야말로 정적들로 조화로

운 원팀을 만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준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가 어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결국 진정한 리더, 진정한 CEO가 되기 위해서는 큰 신념과 큰 생각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자신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 윤영석 광주국세청장, 첨단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소통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초청을 받아 공단 5층 중회의실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임원과 입주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윤영석 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입주기업 대표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모범 납세자 선발 요건 설명 및 수상자 확대 요청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 완화 ▲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상향 ▲ESG경영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보다 많은 성실한 납세자가 모범납세자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본부 초청을 받아 공단 5층 중회의실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국세청 제공

본청에 건의하고, 중소기업 등이 세액공제·감면의 실질적 혜택을 받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에 발맞춘 ESG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의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철 첨단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은 “광주국세청이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움되는 세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수출 ‘희비’

### 취업자 증가 실업률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 소폭 개선

지난 3월 광주·전남의 취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소매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제조업의 경우 광주는 증가했으나, 전남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희비가 갈렸다.

1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광주 제조업계는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했다.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4% 늘었다. 재고는 자동차와 트레일러 등이 늘면서 전년동월대비 7.9% 증가했다.

전남은 화학제품, 기타운송장비 등이 줄면서 전년동월대비 -0.9% 하락했다.

제조업 재고는 석유정제 등이 늘면서 전년동

월대비 4.6%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광주와 전남 모두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6,000명 증가하며 실업률 또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5,000명 감소했으나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1만1,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는 9,000명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3,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했다.

광주와 전남 모두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7%, 5.2% 감소했다. 광주는 백화점 판매가 -1.0%, 대형마트 판매가 -1.9%로 전월에 이어 모두 감소했다.

4월 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89.9로 85.6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4.3p 상승했으나 95.1p를 기록한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보다 낮았다. /오지현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의 : 062) 233-3999